

## 경기

- 서울 3월 산업생산지수 전년동월대비 증가
  - 서울의 산업생산지수는 84.1(005=100)로 전년동월대비 0.1% 증가
  - 부문별로는 중공업 부문 9.2% 증가, 경공업 부문 0.5% 감소
  - 서울의 3월 제조업부문 출하 증가, 재고 감소하여 재고감소 단계로 해석
- 서울 대형소매점 판매액 증가, 부문별로 백화점, 대형마트 각각 증가
  - 서울의 3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1조 7,052억으로 전년동월대비 11.7% 증가
  - 새 학기 시작으로 인한 계절적 요인과 물가상승 등의 영향이 판매액을 증가시킨 것으로 판단됨
- 서울의 3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상승
  - 서울의 3월 서울시 소비자물가지수는 119.3로 전월대비 4.2% 상승
  - 상품성질별로 상품의 경우 전월대비 0.8%, 서비스는 0.1% 각각 상승
  -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2% 상승,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0.3% 하락

## 고용

- 서울의 3월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상승
  - 서울의 3월 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월대비 3.0% 증가한 5,266천명으로 나타남
  - 경제활동참가율은 62.6%로 전년동월대비 1.5%p 상승
- 서울의 3월 취업자수 전년동월대비 증가
  - 서울의 3월 취업자는 4,980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34천명(2.8%)이 증가
  -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55천명(2.0%), 여자는 80천명(3.9%)이 각각 증가
  - 청년층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3.5% 증가, 전국대비(-1.0%) 4.5%p 차이를 보임
  - 60세 이상의 고령층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8.1% 상승하여 꾸준히 플러스 증가
- 서울의 3월 실업률, 고용률 전년동월대비 각각 상승
  - 서울의 3월 전년동월대비 실업률은 5.4%로, 남자는 0.2%p 상승한 6.0%, 여자는 0.2%p 상승한 4.7% 상승
  - 서울의 3월 전년동월대비 고용률은 59.2%로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1.1%p, 여자는 1.5%p 상승
  - 서울의 실업률(5.4%)은 전국 실업률(4.3%)과 1.1%p 차이를 나타냈으며, 고용률의 경우 서울(59.2%)과 전국(58.3%)이 0.9%p 차이를 나타냄

## 부동산

- 서울의 3월 건설수주액 전년동월대비 감소
  - 서울의 건설수주액은 1조 682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4.4% 감소
  - 전국의 건설수주액은 7조 1,791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3.7% 증가
  - 공공부문에서는 철도, 교량공사 등의 수주감소로 전년동월대비 17.0% 감소, 민간부문에서는 재개발 및 신규주택, 교육원 공사 등의 수주 감소로 전년동월대비 6.9% 증가
- 서울의 3월 주택매매가격 상승세 지속
  - 서울(0.2%)의 주택매매가격은 전월대비 상승폭 축소
  - 강북지역(0.2%)은 광진구(1.2%), 은평구(0.6%)를 중심으로 전월대비 소폭 상승
  - 강남지역(0.2%)은 관악구(0.6%), 강동구(0.3%)에서 상승폭 다소 확대
- 서울의 3월 주택전세가격 전월대비 상승폭 확대
  - 서울(1.4%)의 주택전세가격은 전세 선호현상으로 전월대비 상승폭 다소 확대
  - 강북지역(1.6%)은 노원구(2.4%), 광진구(2.0%)를 중심으로 전월대비 상승
  - 강남지역(1.3%)은 구로구(2.8%), 금천구(2.1%)에서 전월대비 상승률 성장

## 금융

- 서울지역 2월 기준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 전월대비 증가
  - 2월 중 서울지역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은 533조 4,555억원 규모로 전월대비 6조 9,004억원(1.31%) 증가
- 서울의 3월 신설법인 수 전년동월대비 증가
  - 서울의 3월 중 신설법인수는 2,055개로 전년동월대비 0.54%(11개) 증가
- 서울의 3월 신설/부도법인 배율 전월대비 상승
  - 서울의 3월 중 신설/부도법인 배율은 40.3배로 전월(33.3배)보다 하락
- 서울의 3월 수출입 전년동월대비 증가
  - 3월 서울의 수출은 46.1억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27.6% 증가. 수출 1순위는 평판 디스플레이 및 센서, 다음은 자동차부품, 편직물, 반도체, 합성수지 등의 순
  - 3월 수입은 109.9억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24.9% 증가. 수입 1순위는 반도체로 나타났고 다음은 석유제품, 컴퓨터, 무선통신기기, 자동차 등의 순

## | 생 · 산 |

## 서울의 3월 산업생산지수 전년동월대비 감소

## ■ 서울의 3월 산업생산지수 전년동월대비 감소

- 서울의 3월 산업생산지수는 98.0(2005=100)로 전년동월대비 3.2% 감소
- 중공업 부문은 전년동월대비 9.2%, 경공업부문은 전년동월대비 0.5% 감소
- 전년동월대비 종이제품(-77.0%) 등의 감소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기장비 등은 (10.0%) 증가
- 중공업 부문의 감소가 서울의 산업생산을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남

## ■ 전국의 3월 광공업 생산 전년동월대비 증가

- 전국의 3월 광공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8.7% 증가, 전월대비로는 1.4% 증가
- 부문별로는 전년동월대비 영상음향통신(-7.3%), 컴퓨터(-5.9%) 등은 부진하였으나 반도체 및 부품(13.4%), 자동차(11.6%) 등의 호조로 8.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부동산임대(-13.7%), 전문·과학기술(-1.8%), 숙박·음식(1.3%)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운수(8.2%), 금융·보험(6.8%), 보건·사회복지(6.7%) 등이 증가하여 2.7%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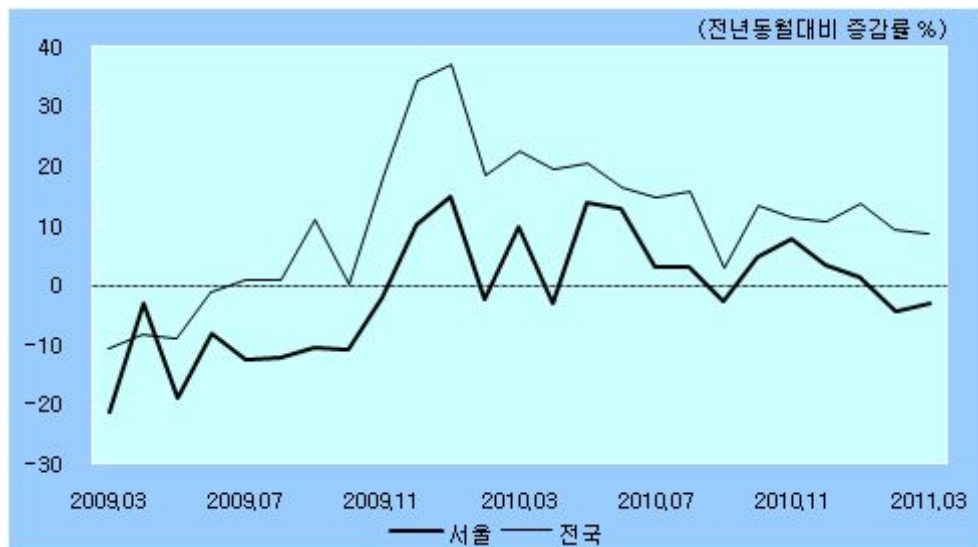
〈표〉 산업생산 증감률 추이

(단위: 전년동월비, %)

구 분		2010년				2011년	
		3월	11월	12월	1월	2월p	3월p
전 년 동 월 비	서울 (제조업)	9.9	7.7	3.5	1.5	-4.3	-3.2
	중공업	15.7	1.4	1.6	2.3	-1.6	-9.2
	경공업	7.3	10.8	4.6	1.3	-5.3	-0.5
	전국	22.4	11.2	10.7	13.6	9.2	8.7

주: 통계표의 부호p는 잠정치를 나타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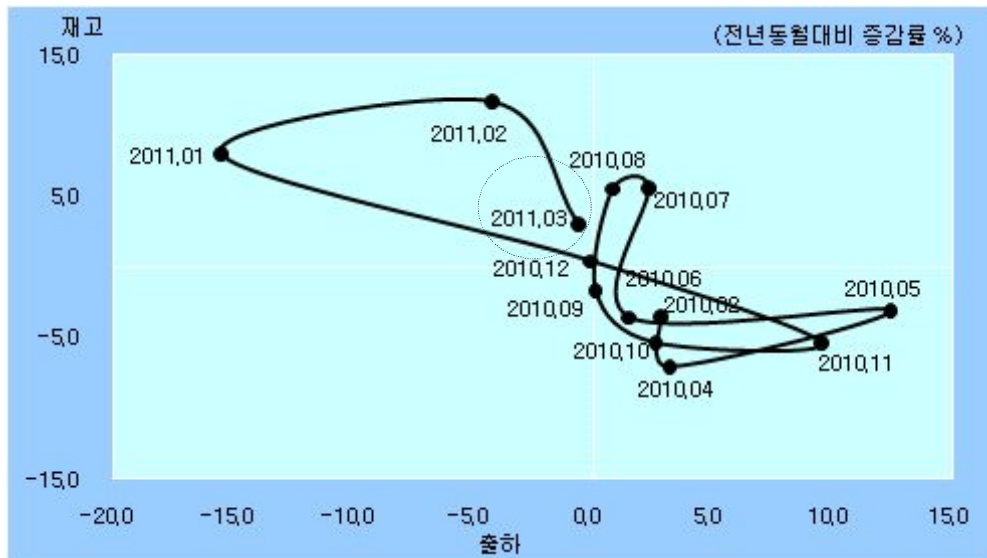
〈그림〉 서울과 전국의 산업생산 증감률 추이

## | 출하 · 재고 순환 |

서울의 3월 제조업부문 재고감소 단계

### ■ 서울의 3월 제조업은 전년동월대비 출하 증가, 재고 감소

- 서울의 3월 재고지수는 157.3(2005=100)로 전년동월대비 0.6% 감소, 업종별로는 의복 및 모피 등은 증가하였으나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음향통신 등에서 감소
- 출하 증가, 재고 감소하여 재고감소 단계로 해석할 수 있음(<Box> 참조)



<그림> 서울의 출하·재고 증감률 추이

<Box> 출하·재고 순환 상관표

출하↓	출하↑	출하↑	출하↓
재고↓	재고↓	재고↑	재고↑
재고조정	재고감소	의도된 재고증가	재고누증

■ 서울 제조업부문 전월대비 재고율 감소, 부문별로는 중공업 증가, 경공업 감소

- 서울의 3월 제조업부문 재고율은 157.3 전월대비 29.8%p 감소하였고, 전국 제조업부문의 재고율은 173.6%로 전월대비 5.3%p 증가함
- 서울의 산업부문별 재고율은 중공업부문이 전월대비 5.3%p 증가한 173.6%를 나타냈고, 경공업부문은 44.1%p 감소한 146.9%로 나타남

〈표〉 서울과 전국의 제조업 재고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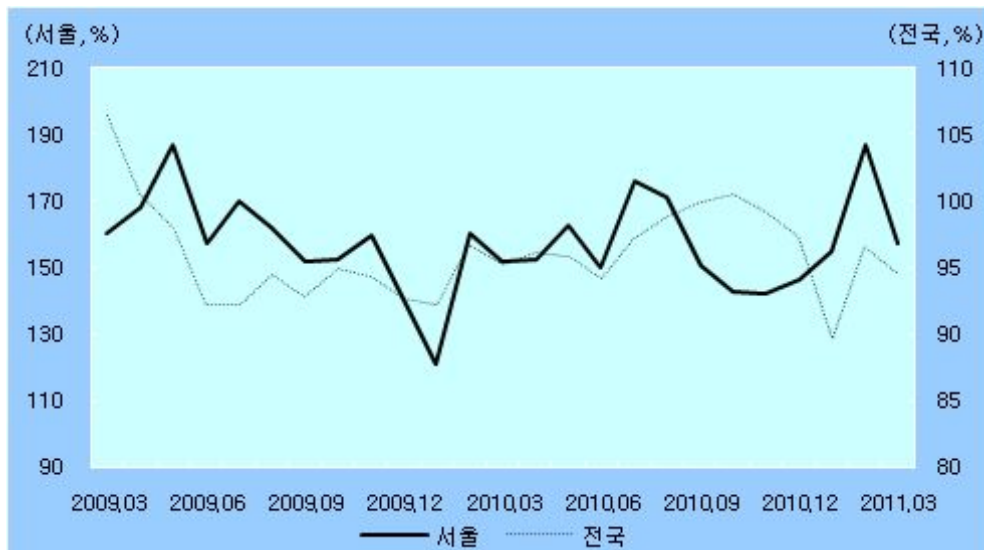
(단위: %)

구 분		2010년			2011년			전월대비 증감
		3월	11월	12월	1월p	2월p	3월p	
재고율	서울	160.2	142.1	146.6	154.7	187.1	157.3	-29.8
	중공업	126.4	135.4	116.9	179.2	168.3	173.6	5.3
	경공업	169.5	141.7	161.4	141.2	191.1	146.9	-44.1
	전국	95.2	99.1	97.3	89.6	96.6	94.5	-2.1

주: 제조업에 대한 재고율 (계절조정재고지수 ÷ 계절조정출하지수) × 100

서울의 재고율 (재고 원지수 ÷ 출하 원지수) × 100, 통계표의 부호p는 잠정을 나타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재고율 추이

## | 소 · 비 |

## 서울의 3월 대형소매점 판매액 전년동월대비 증가

## ■ 서울의 3월 대형소매점 판매액 전년동월대비 증가

- 서울의 3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1조 7,052억으로 전년동월대비 11.7% 증가
- 전년동월대비 백화점 14.9% 증가, 대형마트 7.0%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1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새 학기 시작으로 인한 계절적 요인과 물가상승 등의 영향이 판매액을 증가시킨 것으로 판단됨

## ■ 전국의 3월 대형소매점 판매액 전년동월대비 증가

- 전국의 3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5조 832억으로 전년동월대비 10.7% 증가
- 백화점 판매액은 전년동월대비 10.2% 증가, 대형마트는 2.0% 증가
- 유형별로는 컴퓨터·통신기기, 가전제품, 승용차 등의 내구재가 14.9% , 오락, 의복 등의 준내구재 4.6% 증가, 식료품, 화장품 등 비내구재는 0.4%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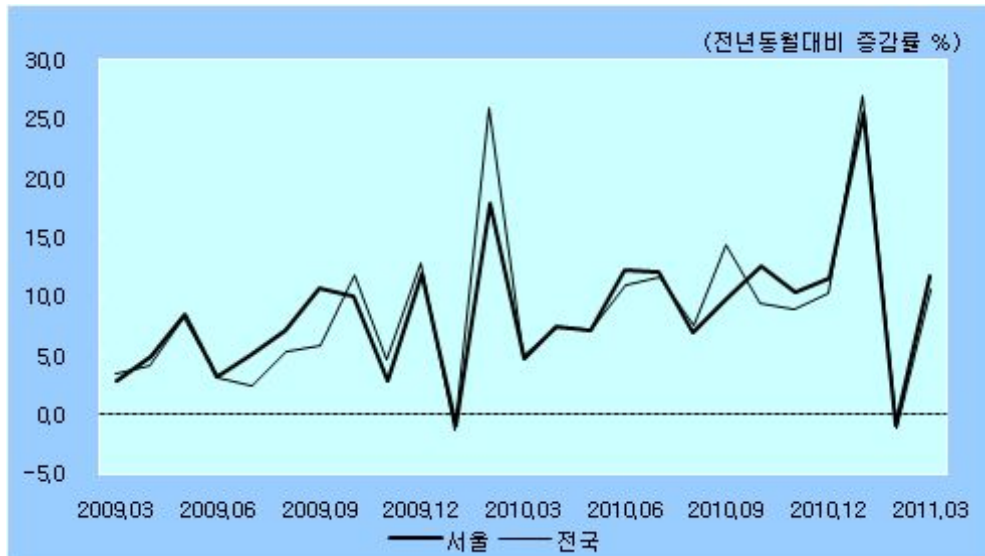
〈표〉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경상금액, 단위: 십억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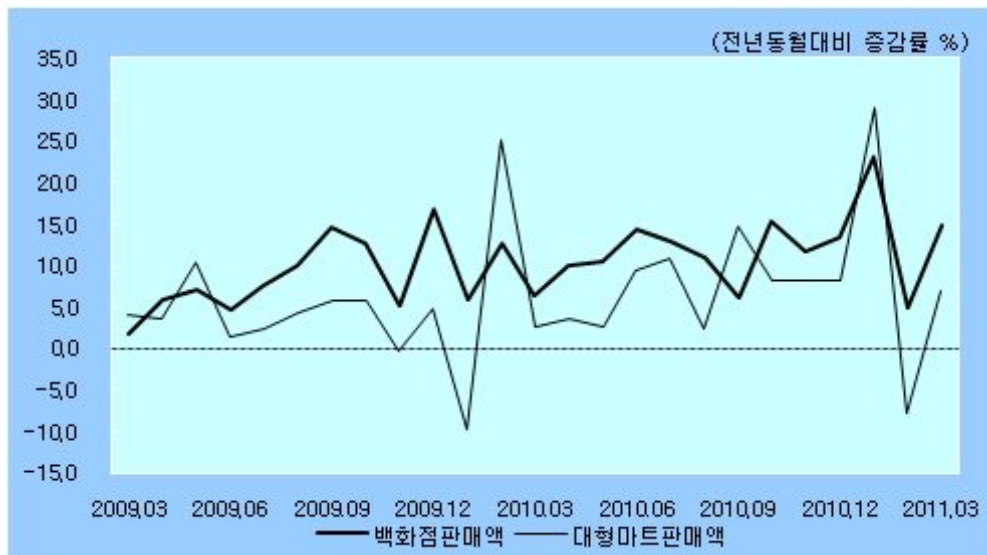
구 분		2010년			2011년		
		3월	11월	12월	1월p	2월p	3월p
판매액	서울	1527,3 (4.8)	1759,9 (10.3)	1905,0 (11.5)	1977,3 (25.5)	1517,3 (-0.8)	1705,2 (11.7)
	백화점	893,0 (6.4)	1104,6 (11.7)	1198,0 (13.4)	1171,2 (23.2)	896,9 (4.8)	1,026,3 (14.9)
	대형마트 (할인점)	634,3 (2.6)	655,2 (8.1)	707,0 (8.3)	806,0 (29.0)	620,4 (-7.9)	678,8 (7.0)
	전국	4593,0 (5.0)	5075,3 (8.9)	5517,9 (10.3)	5992,9 (26.9)	4,724,1 (-1.2)	5,083,2 (10.7)

주: ( )안은 전년동월비임, 대형소매점은 매장면적이 3,000m<sup>2</sup> 이상인 소매점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할인점이 대형마트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그림〉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 | 물 · 가 |

## 서울의 3월 소비자물가 전월대비 상승

## ■ 서울의 3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상승

- 서울의 3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9.3(2005년=100)로 전월대비 0.4%, 전년동월대비 4.2% 각각 상승
- 상품은 전월대비 0.8%, 전년동월대비 7.3% 각각 상승, 서비스는 전월대비 0.1%, 전년동월대비 2.4% 각각 상승

## ■ 서울의 3월 생활물가지수 전월대비 상승, 신선식품지수 전월대비 하락

- 소비자들의 기본생활품을 중심으로 한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2%, 전년동월대비 4.1% 각각 상승
- 생선류, 채소류, 과일류를 대상으로 한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0.3% 하락, 전년동월대비 16.9% 상승

## ■ 전국 3월 소비자물가 전월대비 상승

- 전국의 3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20.4(2005년=100)로 전월대비 0.5% 상승하여 4개월 연속 상승
-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4% 상승, 전년동월대비 4.9% 상승,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0.6% 하락, 전년동월대비 19.0% 상승
- 16개 광역시도별로 전월대비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대구, 강원 등 4개 시도는 전도시 평균(0.5%)보다 높게 0.7~0.8%씩 상승하였고, 서울, 경기 등 11개 시도는 0.1~0.5%씩 상승하였으며, 제주는 0.2%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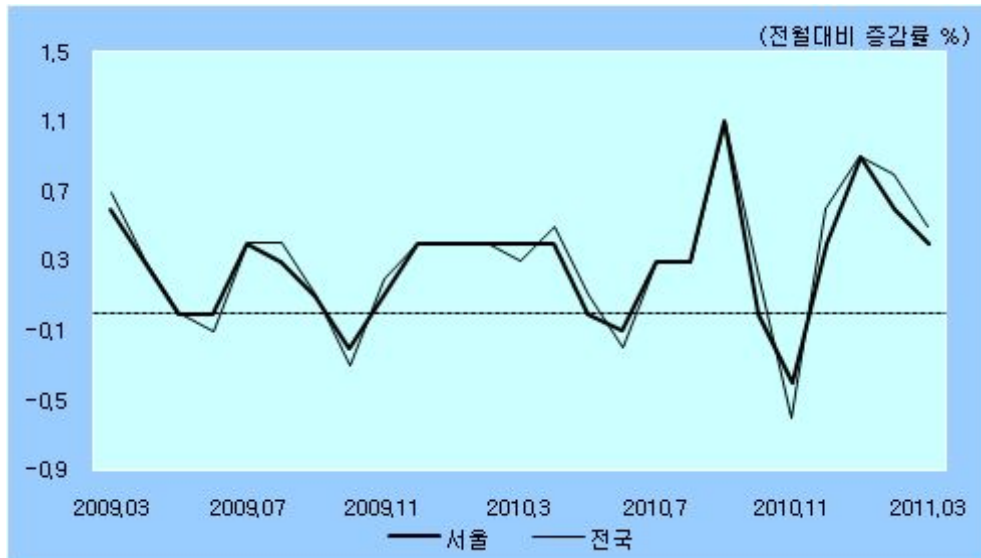
〈표〉 소비자 물가 동향

(2005=100,0, 단위: %)

구 분			2010년				2011년		
			3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전월비	서울		0.4 (2.3)	0.0 (3.7)	-0.4 (3.2)	0.4 (3.3)	0.9 (3.9)	0.6 (4.1)	0.4 (4.2)
	상품 성질별	상품	0.6 (2.8)	-0.3 (6.2)	-1.2 (4.8)	1.1 (5.3)	1.7 (6.4)	0.9 (7.1)	0.8 (7.3)
		서비스	0.3 (2.1)	0.2 (2.4)	-0.1 (2.2)	0.1 (2.1)	0.6 (2.5)	0.4 (2.6)	0.1 (2.4)
	생활물가		0.5 (2.9)	-0.2 (4.1)	-0.8 (3.2)	0.4 (3.2)	1.4 (4.1)	0.8 (4.5)	0.2 (4.1)
	신선식품		5.0 (7.8)	-2.7 (44.9)	-10.1 (34.6)	1.3 (29.9)	4.3 (27.2)	-0.3 (23.0)	-0.3 (16.9)
	전국		0.3 (2.3)	0.2 (4.1)	-0.6 (3.3)	0.6 (3.5)	0.9 (4.1)	0.8 (4.5)	0.5 (4.7)

주: ( )안은 전년동월비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소비자물가 추이(2005=100)

### ■ 서울의 3월 채소류인 양파를 제외한 모든 품목 가격 하락

- 소비자들의 생활필수 품목 중 신선식품의 전월대비 가격동향은 채소류의 경우 평균 4.4%, 양곡과 수산물의 경우 평균 3.6% 각각 하락
- 청과류 중 양파 2.5% 상승하였으며, 파는 15.5%, 멸치 8.9%, 마늘 3.9%, 배추, 무는 2.7% 각각 하락
- 수산물의 경우 고등어는 보합이었으며 멸치는 8.9% 하락, 양곡류인 쌀은 1.8%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표〉 신선식품 가격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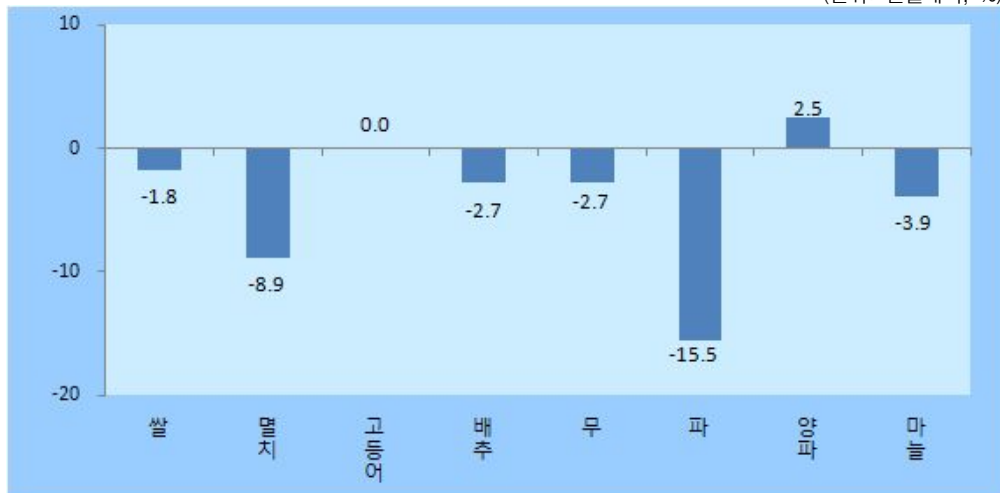
(단위: 전월비, 원, %)

구분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증감률
양곡	쌀	42,435	39,109	39,046	41,609	42,461	41,700	-1.8
수산	멸치	2,543	2,677	2,428	2,615	2,592	2,380	-8.9
	고등어	2,714	3,545	3,674	4,000	4,000	4,000	0.0
채소	배추	7,679	3,908	3,404	4,728	4,805	4,677	-2.7
	무	4,069	2,849	2,655	4,728	4,805	4,677	-2.7
	파	5,927	4,974	4,181	4,302	4,238	3,669	-15.5
	양파	1,726	1,910	1,802	1,962	2,307	2,365	2.5
	마늘	12,329	11,121	8,866	6,863	6,986	6,727	-3.9

주: 52개 생활필수품목 중 신선식품만 선별하여 가격동향을 살펴보았음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단위: 전월대비, %)



주: 멸치(건멸치), 고등어(중품), 배추(가을(상품), 고랭지(상품), 봄(상품), 월동(상품)), 무(가을(상품), 고랭지(상품), 봄(상품)), 파(대파(상품)), 양파(상품), 마늘(깐마늘(상품)) 가 기준

〈그림〉 서울시 농수산물 시장의 월간 등락품목

## | 경 · 제 · 활 · 동 · 인 · 구 |

## 서울의 3월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상승

## ■ 서울의 3월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상승

- 서울의 3월 15세 이상 인구는 8,40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1천명(0.5%)이 증가, 경제활동인구는 5,26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53천명(3.0%)이 증가
- 경제활동참가율은 62.6%로 전년동월대비 1.5%p 상승
- 가사 또는 통학 등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은 비경제활동인구는 3,14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3천명(-3.5%)이 감소

## ■ 전국의 3월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상승

- 3월 15세이상인구는 40,91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63천명(1.1%) 증가, 경제활동인구는 24,91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36천명(2.2%) 증가
- 성별로 보면 남자는 14,659천명으로 339천명(2.4%) 증가하였으며, 여자는 10,259천명으로 197천명(2.0%) 증가
-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동월대비 0.6%p 상승

〈표〉 경제활동인구

(단위: %)

구 분		2010년				2011년		
		3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경제활동인구	서울	0.8 (0.2)	3.6 (0.5)	1.9 (-0.3)	2.7 (0.5)	1.4 (-1.2)	2.4 (1.2)	3.0 (0.9)
	남자	0.6 (0.3)	2.9 (0.6)	0.9 (-0.4)	1.4 (0.2)	0.1 (-1.2)	1.3 (1.1)	2.2 (1.2)
	여자	1.2 (0.1)	4.4 (0.3)	3.3 (-0.3)	4.5 (1.0)	3.2 (-1.1)	3.8 (1.3)	4.1 (0.3)
	전국	1.3 (1.4)	1.4 (0.4)	0.9 (-0.6)	2.0 (-1.2)	0.1 (-1.7)	1.6 (1.3)	2.2 (2.0)
경제활동참가율	서울	61.1	62.1	61.8	62.1	61.4	62.1	62.6
	남자	72.6	73.4	73.1	73.2	72.3	73.1	74.0
	여자	50.2	51.4	51.2	51.7	51.1	51.8	51.9
	전국	60.3	61.4	61.0	60.1	59.0	59.8	60.9

주: ( )안은 전월비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 | 취 · 업 · 자 |

## 서울의 3월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증가

## ■ 서울의 3월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증가

- 서울의 3월 취업자는 4,980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34천명(2.8%)이 증가
- 성별로 보면 남자는 2,834천명, 여자는 2,14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55천명(2.0%), 여자는 80천명(3.9%)이 각각 증가
- 산업별로는, 전년동월대비 농림어업 0.4천명(8.7%), 건설업 30천명(8.6%),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116천명(6.4%), 전가·운수·통신·금융업 20천명(2.6%)이 각각 증가한 반면, 제조업 26천명(-5.0%), 도소매·음식숙박업 5천명(-0.4%)이 각각 감소
- 청년층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3.5% 증가, 전국대비(-1.0%) 4.5%p 차이를 나타냄
- 60세 이상의 고령층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8.1% 상승하여 꾸준히 플러스 증가세를 이어감

## ■ 전국의 3월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증가

- 전국의 3월 취업자는 23,84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69천명(2.0%) 증가
- 성별로 보면 남자는 14,01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25천명(2.4%) 증가하였고, 여자는 9,834천명으로 143천명(1.5%) 증가
- 연령계층별로 보면 20대와 30대를 제외한 연령층에서 증가
- 청년층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0% 감소한 반면, 고령층 취업자 전년동월대비 7.1%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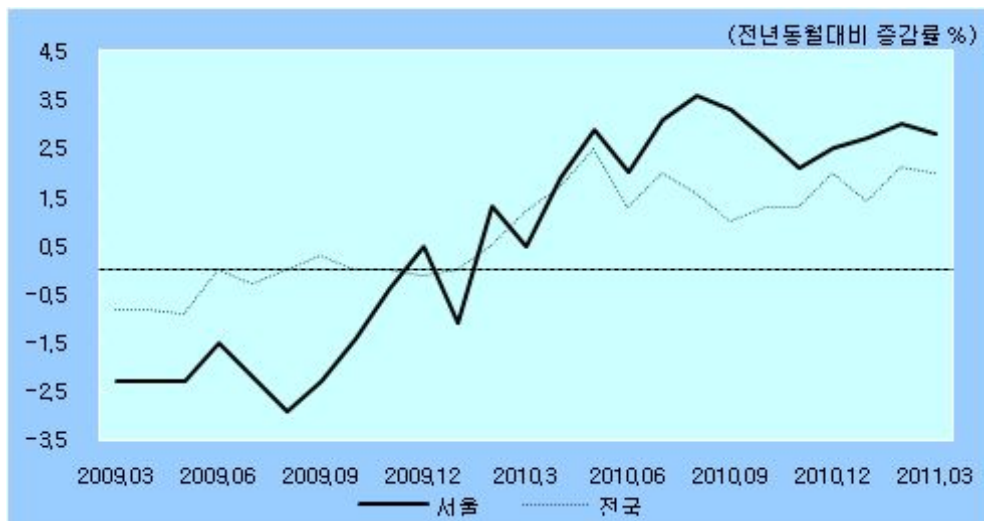
〈표〉 연령별 취업동향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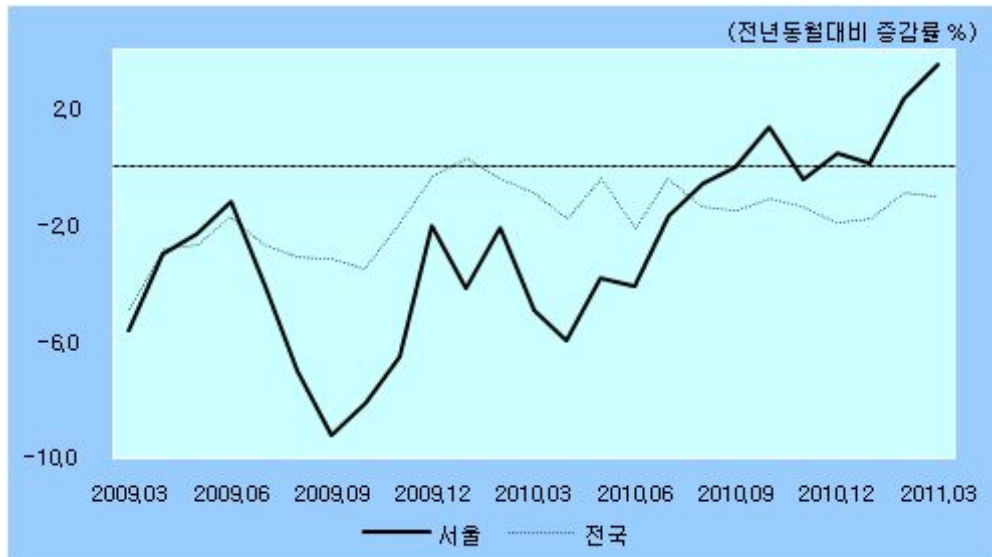
구 분		2010년				2011년		
		3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취업자	서울	0.5 (0.9)	2.7 (0.3)	2.1 (0.2)	2.5 (0.3)	2.7 (-1.7)	3.0 (0.7)	2.8 (0.7)
	남자	0.9 (1.1)	1.8 (0.2)	0.4 (-0.2)	1.0 (0.6)	1.5 (-1.9)	1.9 (0.5)	2.0 (1.2)
	여자	0.1 (0.6)	4.0 (0.4)	4.3 (0.7)	4.5 (0.0)	4.4 (-1.4)	4.5 (0.9)	3.9 (0.0)
	전국	1.2 (2.2)	1.3 (0.5)	1.3 (-0.3)	2.0 (-1.8)	1.4 (-2.1)	2.1 (0.6)	2.0 (2.2)
청년층 취업자	서울	-4.9 (-3.0)	1.4 (0.6)	-0.4 (-0.2)	0.5 (3.4)	0.1 (-1.2)	2.3 (1.1)	3.5 (-1.9)
	전국	-0.9 (-1.8)	-1.1 (-0.5)	-1.4 (1.4)	-1.9 (0.1)	-1.8 (1.3)	-0.9 (-1.5)	-1.0 (-1.8)
고령층 취업자	서울	9.4 (8.1)	3.5 (-0.9)	1.3 (-1.3)	2.5 (-1.0)	10.4 (-3.2)	12.5 (2.6)	8.1 (3.9)
	전국	0.5 (12.7)	0.8 (0.4)	0.6 (-4.4)	5.8 (-9.6)	4.6 (-9.0)	6.4 (4.8)	7.1 (13.5)

주: ( )안은 전월비임. 청년층 취업자는 15세~29세임. 고령층 취업자는 60세 이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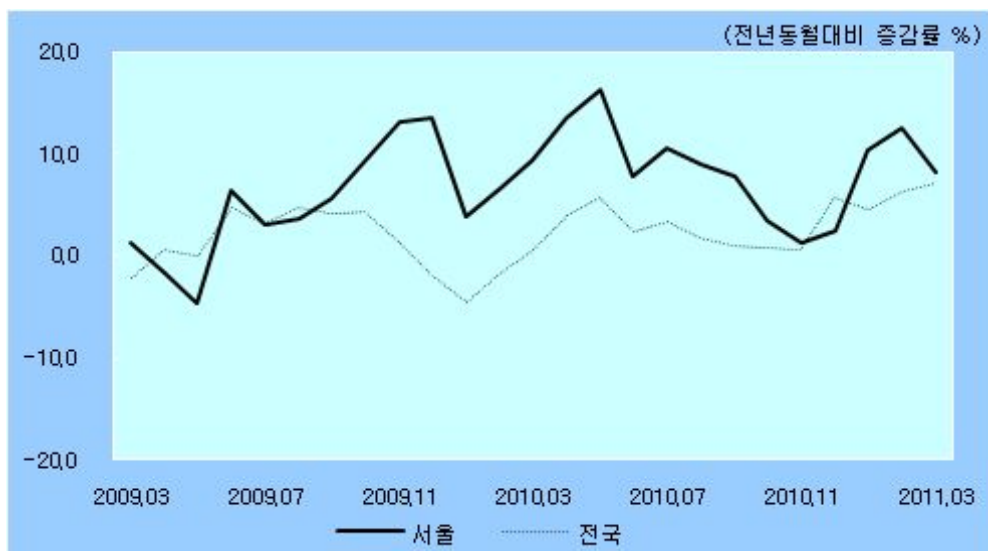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월별 취업자 증감률 추이



〈그림〉 서울과 전국의 월별 청년층(15~29세) 취업자 증감률 추이



〈그림〉 서울과 전국의 월별 고령층(60세 이상) 취업자 증감률 추이

#### ■ 서울의 농림어업숙련종사자, 기능기계조작단순종사자 등은 증가

- 직업별로 보면, 전년동월대비 농림어업숙련종사자 2천명(39.7%), 사무종사자 94천명(11.4%),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종사자 52천명(3.9%), 전문·기술·행정관리자 19천명(1.4%)이 각각 증가
- 반면, 서비스·판매종사자는 34천명(-2.7%)이 감소

#### ■ 서울의 비임금근로자 전년동월대비 감소, 임금근로자 전년동월대비 증가

- 비임금근로자는 1,191천명이고, 임금근로자는 3,789천명으로 나타났음
-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자는 전년동월대비 35천명(-3.3%), 무급가족종사자는 1천명(-0.6%)이 각각 감소
- 임금근로자 중 전년동월대비 상용근로자는 166천명(8.0%), 일용근로자는 21천명(5.3%)이 각각 증가하였으나, 임시근로자는 17천명(-1.4%) 감소

#### ■ 서울의 36시간 이상 취업자 전년동월대비 증가

- 취업시간대별로 보면, 36시간미만 취업자는 52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9천명(-5.3%)이 감소하였고,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4,39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57천명(3.7%)이 증가
- 36시간 미만 취업자 중 1~17시간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2천명(1.0%)이 증가하였으나, 18~35시간 취업자는 31천명(-8.8%)이 감소
- 36시간 이상 취업자 중 36~53시간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08천명(3.7%), 54시간 이상 취업자는 48천명(3.6%)이 각각 증가
- 일시휴직자는 6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천명(12.5%) 증가
-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46.3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0.3시간 증가



〈표〉 산업별, 직업별, 종사상 지위별 취업동향

(단위: %)

구 분		2010년				2011년		
		3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산업별	제조업	-7.2 (3.2)	11.6 (3.2)	6.4 (-3.6)	3.1 (-2.1)	-0.9 (-3.7)	1.3 (4.3)	-5.0 (-3.1)
	SOC 및 기타서비스업	1.6 (0.6)	1.7 (-0.1)	1.5 (0.7)	2.4 (0.7)	3.1 (-1.4)	3.2 (0.3)	3.7 (1.1)
	사업·개인·공공서비스	1.9 (1.4)	2.1 (-0.3)	3.0 (1.0)	5.3 (0.7)	8.0 (-1.4)	7.4 (1.1)	6.4 (0.5)
	도소매·음식숙박	1.0 (-1.8)	-3.9 (-1.0)	-4.8 (0.6)	-4.6 (1.1)	-5.6 (-1.6)	-4.8 (-0.4)	-0.4 (2.8)
	전기·운수·통신·금융	6.7 (-0.8)	5.6 (2.9)	5.9 (0.8)	4.8 (0.9)	3.8 (0.0)	3.5 (0.0)	2.6 (-1.7)
	건설업	-7.5 (9.0)	12.5 (-1.8)	8.8 (-1.0)	9.3 (-1.5)	11.7 (-3.9)	13.5 (-0.9)	8.6 (4.3)
직업별	전문·기술·행정관리자	0.6 (-0.3)	-1.9 (0.8)	-2.3 (-0.2)	-0.1 (1.7)	0.4 (-0.6)	1.7 (0.7)	1.4 (-0.6)
	기능·기계작·조립·단순종사자	2.9 (5.9)	11.8 (-0.3)	6.4 (-2.6)	8.0 (-0.3)	9.2 (-3.6)	8.8 (2.8)	3.9 (1.2)
	서비스·판매종사자	-1.5 (-1.8)	-4.1 (-1.3)	-2.6 (0.9)	-3.1 (0.1)	-5.1 (-0.9)	-4.9 (-1.6)	-2.7 (0.5)
	사무종사자	-0.2 (-1.1)	6.5 (2.6)	9.3 (4.4)	6.4 (-0.2)	8.9 (-1.3)	8.0 (0.4)	11.4 (2.0)
종사상 지위별	임금근로자	-0.1 (1.0)	4.3 (0.6)	3.4 (0.2)	4.3 (0.6)	5.1 (-2.2)	5.4 (0.9)	4.7 (0.4)
	비임금근로자	2.6 (0.5)	-1.9 (-0.8)	-2.0 (0.2)	-3.0 (-0.5)	-4.3 (0.1)	-3.9 (-0.1)	-3.0 (1.6)

주: ( )안은 전월비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 | 실 · 업 · 률 |

서울의 3월 실업률, 고용률 전년동월대비 각각 증가

■ 서울의 3월 실업률 전년동월대비 증가

- 서울의 3월 실업자는 28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9천명(7.2%)이 증가
- 성별로 보면, 남자는 181천명, 여자는 10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각각 11천명(6.5%), 8천명(8.5%)이 증가
- 실업률은 5.4%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 성별로 보면, 남자는 6.0%, 여자는 4.7%로 전년동월대비 모두 0.2%p 상승

■ 전국의 3월 실업률 전년동월대비 증가

- 전국의 3월 실업자는 1,07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8천명(6.8%) 증가
- 성별로 보면 남자는 64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4천명(2.2%), 여자는 42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4천명(14.6%) 증가
- 실업률은 4.3%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 성별로 보면 남자는 4.4%로 전년동월과 동일하였고, 여자는 4.1%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

■ 서울 및 전국의 3월 고용률 전년동월대비 각각 상승

- 서울의 3월 고용률은 59.2%로 전년동월대비 1.3%p 상승
- 성별로 보면, 남자는 69.5%, 여자는 49.5%로 전년동월대비 각각 1.1%p, 1.5%p 상승
- 서울의 고용률은 전국의 고용률과 0.9%p 차이
- 전국의 3월 고용률은 58.3%로 전년동월대비 0.5%p 상승
- 성별로 보면 남자는 70.0%로 전년동월대비 0.8%p, 여자는 47.0%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
- 연령계층별로 보면 20대를 제외한 연령계층에서 전년동월대비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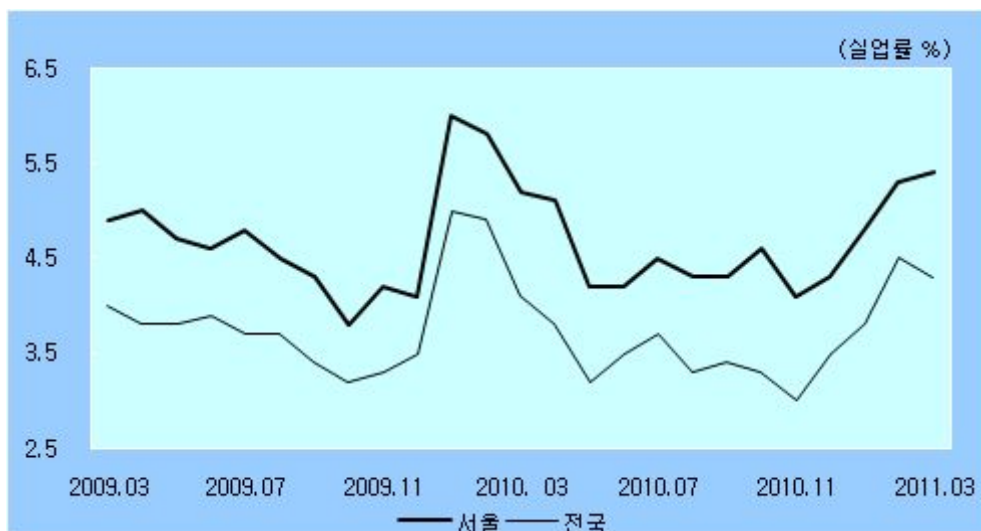
〈표〉 서울의 실업 동향

(단위: %)

구 분		2010년				2011년		
		3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실업률	서울	5.2	4.6	4.1	4.3	4.8	5.3	5.4
	남자	5.8	5.3	5.1	4.8	5.4	5.9	6.0
	여자	4.5	3.6	2.7	3.6	4.0	4.3	4.7
	전국	4.1	3.3	3.0	3.5	3.8	4.5	4.3

		2009년		2010년				2011년
		3/4	4/4	1/4	2/4	3/4	4/4	1/4
청년층 실업률	서울	8.4	7.8	10.0	8.1	7.7	8.0	9.3
	전국	8.1	7.6	9.5	7.7	7.6	7.1	8.8
고령층 실업률	서울	2.0	1.7	7.2	4.3	3.1	2.7	5.3
	전국	1.6	1.5	5.8	2.1	2.0	1.9	4.5

주: ( )안은 전월비임. 청년층 취업자는 15세~29세임. 고령층 취업자는 60세 이상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실업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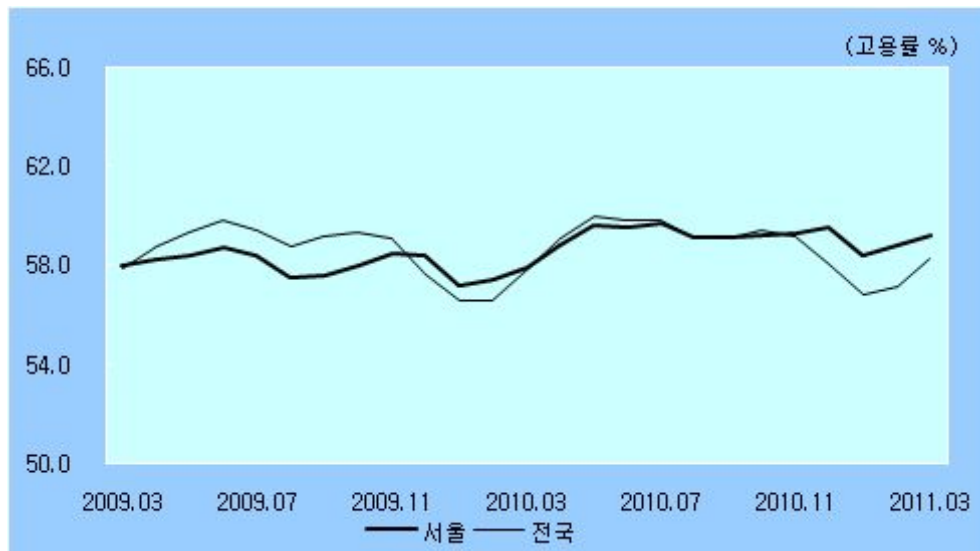
〈표〉 서울의 고용 동향

(단위: %)

구 분		2010년					2011년	
		3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고용률	서울	57.9	59.2	59.3	59.5	58.4	58.8	59.2
	남자	68.4	69.5	69.3	69.7	68.4	68.7	69.5
	여자	48.0	49.5	49.9	49.8	49.1	49.5	49.5
	전국	57.8	59.4	59.2	58.0	56.8	57.1	58.3

		2009년		2010년				2011년
		3/4	4/4	1/4	2/4	3/4	4/4	1/4
청년층 고용률	서울	43.8	42.8	42.8	44.1	44.0	43.7	44.4
	전국	40.7	40.1	40.1	40.8	40.6	39.9	40.0
고령층 고용률	서울	31.1	32.5	29.4	32.7	32.7	32.0	31.3
	전국	38.9	36.4	31.4	38.4	38.2	35.8	32.0

주: ( )안은 전월비임. 청년층 취업자는 15세~29세임. 고령층 취업자는 60세 이상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고용률 추이

## | 건 · 설 · 경 · 기 |

## 서울의 3월 건설수주액 전년동월대비 감소

## ■ 서울의 3월 건설수주액 전년동월대비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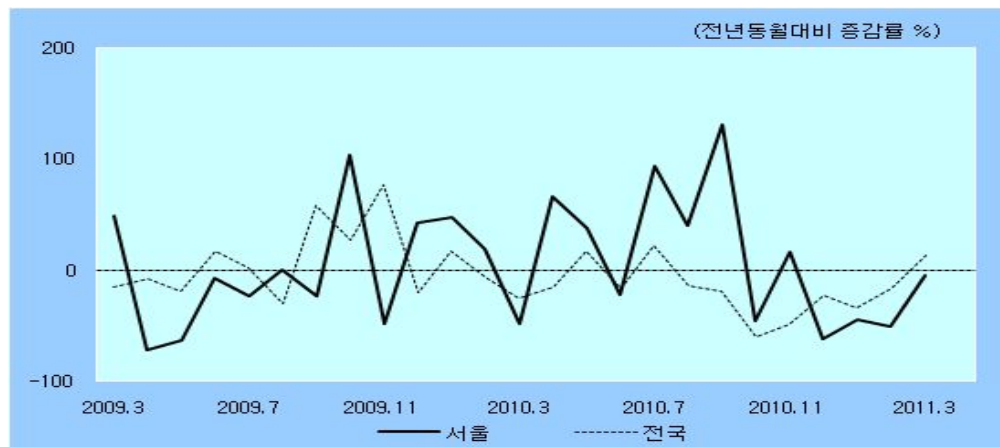
- 서울의 건설수주액은 1조 682억으로 전년동월대비 4.4% 감소
- 공공부문에서는 교량 및 상하수도, 하천정비 공사 등의 수주 감소로 전년동월대비 17.0% 감소하였으며, 민간부문에서는 사무실 및 재건축 주택, 신규주택 등의 수주 감소로 전년동월대비 6.9% 증가
- 공종별로는 전년동월대비 건축부문은 12.7% 증가, 토목부문은 89.7% 감소
- 전국의 건설수주액은 7조 1,791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3.7% 증가

〈표〉 건설수주액

(단위: 십억 원, %)

구 분	2010년			2011년			전년동월비 증감률	전월대비 증감률
	3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서울	1,117	1,945	2,020	519	642	1,068	-4.4	66.4
발주자별								
공공	213	79	607	141	35	177	-17.0	405.7
민간	833	1,866	1,265	359	580	891	6.9	53.6
공종별								
건축	931	1,932	1,829	497	605	1,049	12.7	73.4
토목	186	13	191	22	37	19	-89.7	-48.6
전국	6,314	7,459	14,014	4,658	3,959	7,179	13.7	81.3

주: 발주자별 수주액은 국내외국기관, 민자공사 수주액이, 공종별 수주액은 전문공사 수주액이 제외된 수치임  
 자료: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건설수주액 추이

## | 주 · 택 · 매 · 매 · 가 · 격 |

## 서울의 3월 주택매매가격 상승폭 축소

## ■ 서울의 3월 주택매매가격 전월대비 상승폭 축소

- 서울의 주택매매가격은 전월대비 0.2% 축소되었으나, 수도권 주택매매가격은 0.3%로 전월과 동일
- 주택유형별 매매가격은 아파트는 0.1%로 전월대비 상승폭이 축소되었으나,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은 각각 0.4%, 0.3%로 상승폭이 확대

## ■ 전국의 3월 주택매매가격 전월대비 상승폭 다소 확대

- 전국의 주택매매가격의 전월대비 증감률은 1.0%로 상승폭이 확대된 가운데 광역시와 기타지방이 각각 1.4%, 1.7% 상승하여 수도권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세 지속

〈표〉 매매가격 지수 증감률

(2008.12=100.0, 단위: %)

구 분		2010년	2011년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전월대비 증감률
		3월	2월	3월		
서울		103.1	101.9	102.1	-1.0	0.2
아파트		102.9	100.8	100.9	-1.9	0.1
지역별 주택매매	강북	102.3	100.7	101.0	-1.3	0.2
	강남	103.9	103.0	103.2	-0.7	0.2
전국		102.3	104.7	105.7	3.3	1.0

자료: 국민은행연구소

#### ■ 강북, 전월대비 소폭 상승

- 강북지역은 광진구와 은평구를 중심으로 전월대비 0.2% 소폭 상승
- 광진구는 매매물량이 많지 않은 가운데 전세가격 상승과 전세물량 부족으로 매매전환 수요가 증가하면서 1.2% 상승
- 은평구는 매매거래가 비교적 한산한 가운데 전세물량 부족으로 소형주택을 중심의 매매 전환수요가 증가하면서 0.6% 소폭 상승

#### ■ 강남, 전월대비 상승폭 동일

- 강남지역은 관악구와 강동구를 중심으로 전월대비 0.2% 상승
- 관악구는 최근 전세가격 상승에 따라 유입되는 수요와 역세권 소형을 중심으로 한 직장인 수요 등으로 전월에 이어 0.6%로 상승 지속
- 강동구는 역세권 소형을 중심으로 신혼부부와 직장인 수요 등이 증가하면서 전월대비 0.3% 상승

#### ■ 서울의 3월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 소폭 하락

- 서울의 3월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은 평균 1,807.11만원으로 전월(1,808.03만원)대비 소폭 하락
- 서울 아파트의 평균 평당 매매가격을 상회하는 구는 강남구(3,301만원), 서초구(2,875만원), 용산구(2,552만원), 송파구(2,409만원), 양천구(1,951만원), 광진구(1,882만원), 강동구(1,873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서울 아파트의 평균 평당 매매가격에 하회하는 구는 금천구(1,003만원), 도봉구(1,098만원), 중랑구(1,132원), 강북구(1,136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 주 · 택 · 전 · 세 · 가 · 격 |

## 서울의 3월 주택전세가격 전월대비 상승폭 확대

## ■ 서울의 3월 주택전세가격은 전세물량 부족이 지속되면서 전월대비 1.4% 상승

- 강북지역은 노원구, 광진구를 중심으로 전월대비 1.6% 상승하여 지속적인 상승세
- 노원구는 신학기와 봄 이사철의 영향으로 전세물량 부족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신혼 부부 및 젊은층이 선호하는 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월대비 2.4% 상승
- 광진구는 강북지역에서 비교적 양호한 주거 및 교육 환경과 강남, 종로 등 중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용이하여 유입되는 수요 등으로 전월대비 2.0% 상승하여 지속적인 상승세
- 강남지역은 구로구, 금천구 등 강남지역에서 비교적 가격부담이 크기 않은 곳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1.3% 상승
- 구로구는 가산 디지털단지와 구로 디지털단지의 근로자 수요가 유입되고 가격부담이 높지 않은 소형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2.8% 상승
- 금천구는 전세가격 상승으로 기존 세입자들이 재계약을 선호하는 가운데, 강남지역 대비 전세가격이 낮아 유입되는 수요 등으로 전세물량이 부족해지면서 전월대비 2.1% 상승

## ■ 전국의 3월 주택전세가격은 수급불균형이 지속되면서 전월대비 1.7% 상승

- 전국의 주택전세가격은 전세 공급물량 부족과 금리인상 등으로 매매를 보류하고 전세를 유지하려는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월대비 1.7% 상승
- 서울과 인천, 수도권은 각각 전월대비 1.4%, 0.8%, 1.8%로 전세가격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광역시와 기타지방은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며 각각 전월대비 1.6%, 1.7% 상승



〈표〉 전세가격 지수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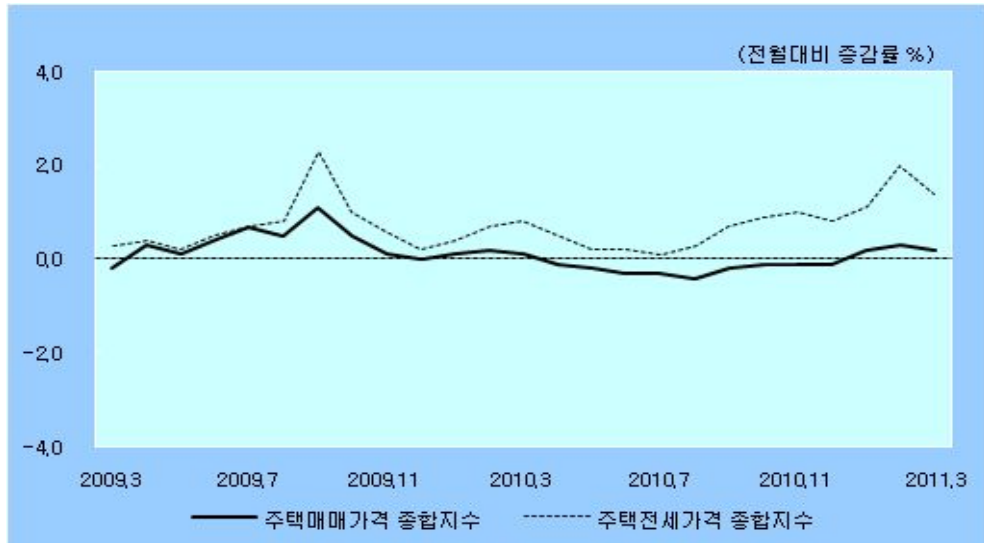
(2008.12=100.0, 단위: %)

구 분		2010년	2011년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전월대비 증감률
		3월	2월	3월		
서울		107.9	115.8	117.4	8.8	1.4
아파트		110.5	119.9	122.0	10.4	1.8
지역별 주택전세	강북	105.6	112.1	113.9	7.9	1.6
	강남	110.3	119.4	120.9	9.6	1.3
전국		105.0	113.5	115.5	10.0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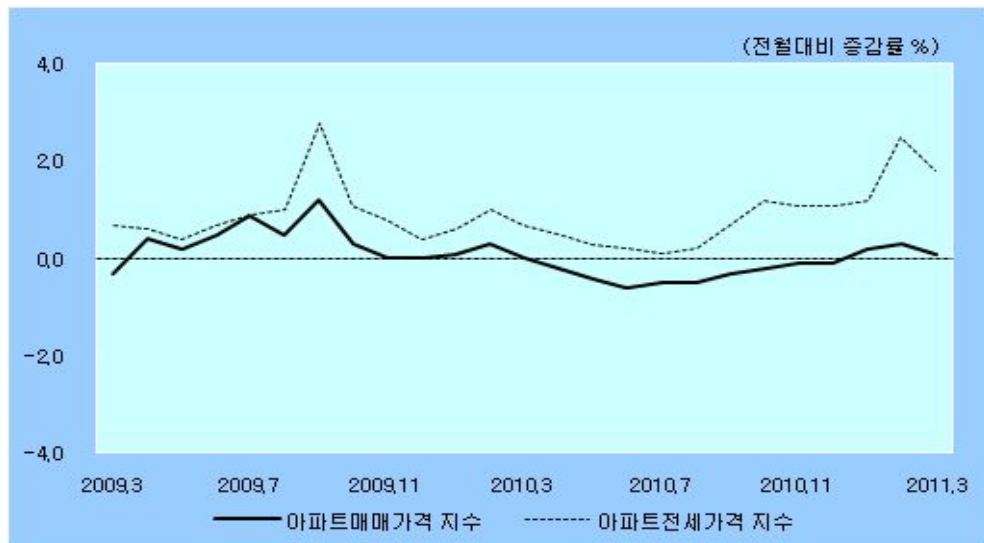
자료: 국민은행연구소

#### ■ 서울의 3월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 전월대비 소폭 상승

- 3월 중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은 46.4%로 전월(45.6%)보다 0.8%p 상승하여 지속적인 상승세
-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은 전국 평균 58.4%보다 12.0%p 낮은 수준이며, 전국과의 격차는 전월(12.2%p)보다 소폭 상승
- 지역적으로 보면 그 비율은 강북 49.9%, 강남 44.2%로 강북이 강남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강남·북간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은 전월부터 상승세 지속



〈그림〉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및 주택전세가격 지수 추이



〈그림〉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및 아파트 전세가격 지수 추이

## | 시 · 중 · 자 · 금 · 사 · 정 |

## 3월 국고채 · 회사채 금리 전월대비 소폭 하락

## ■ 3월 중 국고채 큰 폭의 등락이후 전월대비 소폭 하락

- 3월 중 국고채(3년)금리는 월초 물가 오름세 확대 등으로 3.94%까지 올랐다가 중동 · 북아프리카지역 정정불안, 일본 대지진 및 원전사고 등으로 3.57%까지 급락하였으며 이후에는 해외 불안요인에 대한 우려 완화 등으로 반등하여 전월대비 0.8% 하락

## ■ 회사채 금리 전월대비 소폭 하락, CD 금리는 상승세 지속

- 3월 중 회사채(3년) 금리는 전월대비 0.18%p 하락하여 3월 중 4.54%로 마감
- 3월 중 CD(91일) 금리는 기준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큰 폭 상승하며 3월 중 3.39%로 마감

## ■ 장 · 단기 금리차는 전월대비 증가

- 2월 중 장 · 단기 금리차는 국고채(장기) 금리의 하락과 CD(단기) 금리의 지속적인 상승세에 힘입어 전월대비 0.06%p 상승한 0.73%로 마감

## ■ KOSPI 지수 전월대비 하락

- 3월 중 코스피는 해외 불안요인의 영향으로 급락하였으나 중순이후 불안요인에 대한 우려 완화, 국내기업 실적개선 기대 등으로 급등하여 3월 중 2,002.67p로 마감

## ■ 3월 중 원/달러 환율은 전월대비 하락

- 3월 중 원/달러 환율은 전월대비 -6.99원 하락

〈표〉 주요 금융지표 추이

(기간 중 평균, 단위: %, %p)

구 분		2010년				2011년		전월대비 증감 (B-A)
		3월	11월	12월	1월	2월(A)	3월(B)	
금리	국고채(3년)	3.94	3.40	3.25	3.96	3.84	3.73	-0.11
	CD(91일물)	2.83	2.73	2.80	3.05	3.17	3.39	0.22
	콜금리(1일)	2.01	2.37	2.50	2.66	2.75	3.00	0.25
	장단기 금리차 <sup>1)</sup>	1.11	0.67	0.75	0.91	0.67	0.73	0.06
주가	KOSPI	1,665.50	1,924.71	2,002.50	2,091.61	2,002.87	2,002.67	-0.2
	KOSDAQ	518.70	514.88	505.36	528.60	517.58	510.59	-6.99
환율 (₩/US\$)		1,136.11	1,128.08	1,147.55	1,120.07	1,118.14	1,122.45	4.31

주: 1) 장단기 금리차 = 국고채-CD

자료: 한국은행

## ■ 3월 중 은행 가계대출 전월대비 증가

- 3월 중 은행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이 늘었으나 신용대출이 감소하면서 전월보다 증가규모 축소
- 주택담보대출(모기지론양도 포함)은 아파트 입주물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봄 이사철, 은행의 대출 확대 노력 등으로 개별대출을 중심으로 증가규모가 소폭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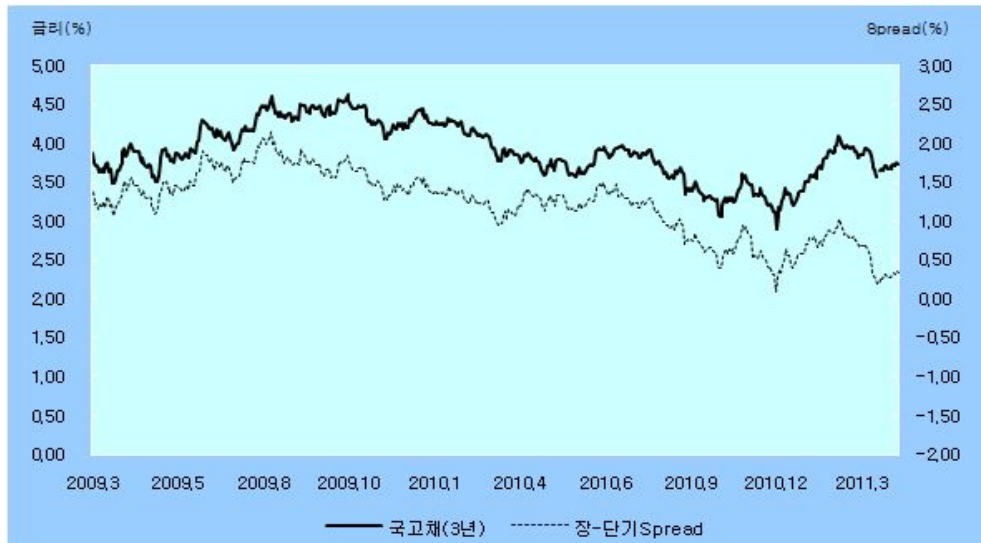
〈표〉 가계대출 증감 추이

(기간 중 말잔 증감, 단위: 조 원, %)

구 분		2010년			2011년			월말잔액	
		연중	11월	12월	1월	2월	3월	2011년	
								2월	3월
가계대출 <sup>1)</sup>		21.8	4.1	2.1	-1.0	1.5	1.7	431.7	434.1
주택담보대출 <sup>2)</sup>		20.3	2.9	2.7	0.8	1.8	2.1	287.8	289.9
마이너스통장대출 등		1.7	1.2	-0.5	-1.7	0.4	-0.4	143.6	143.3

주: 1) 종별대출은 신탁 제외 2) 주택자금대출 포함

자료: 한국은행



〈그림〉 주요 금리추이



〈그림〉 종합주가 및 환율 추이

## ■ 2월 기준 서울지역 전체 대출금 잔액 전월대비 증가

- 2월 중 서울지역 금융기관의 전체 대출금 잔액은 533조 4,555억원 규모로 전월대비 6조 9,004억원(1.31%) 증가
- 2월 전국의 금융기관의 전체 대출금 잔액은 1,335조 4,357억원으로 전월대비 11조 8,642억원(0.90%) 증가

〈표〉 서울시 금융기관<sup>1)</sup> 대출금 잔액 추이

(말잔, 단위 : 십억 원, %)

		2010년			2011년		전월대비 증감액	전월대비 증감률
		2월	11월	12월	1월	2월		
서울	예금은행	415,482.2	430,077.3	423,631.2	426,698.5	429,612.8	2,914.3	0.68
	비은행기관	103,842.7	98,917.0	97,894.2	99,856.6	103,842.7	3,986.1	3.99
	합계	519,324.90	528,994.3	521,525.4	526,555.1	533,455.5	6,900.4	1.31
전국	예금은행	958,052.8	997,054.2	987,148.1	993,802.1	1,001,239.2	7,437.1	0.75
	비은행기관	307,711.4	326,025.3	327,823.0	329,769.4	334,196.5	4,427.1	1.34
	합계	1,265,764.2	1,323,079.5	1,314,971.1	1,323,571.5	1,335,435.7	11,864.2	0.90

주: 1) 예금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한국수출입은행, 종합금융회사, 신탁회사,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을 합한 예금취급기관 기준, 생명보험사 및 증권금융은 제외됨

## | 신 · 설 · 법 · 인 · 동 · 향 |

서울의 3월 서비스업 신설법인 수 전년동월대비 증가

## ■ 서울의 3월 신설법인 수 전년동월대비 증가

- 3월 서울의 신설법인 수는 2,055개로 전년동월대비 0.54%(11개), 전월대비 36.91%(554개) 증가
- 3월 전국의 신설법인 수는 5,756개로 전년동월대비 1.84%(104개), 전월대비 35.50%(1,508개) 증가

## ■ 서울의 3월 서비스업 신설법인수 전년동월대비 증가

- 3월 중 서울의 서비스업 신설법인수는 전년동월대비 8.97%(138개)가 증가하였으나 건설 및 설비업과 제조업은 각각 35.09%(120개), 17.09%(27개) 감소

〈표〉 산업별 신설업종

(단위: 개소, %)

구분	2010년		2011년			전월비		전년동월비	
	3월	12월	1월	2월	3월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서울	2,044	1,938	2,000	1,501	2,055	554	36.91	11	0.54
서비스업	1,539	1,524	1,566	1,165	1,677	512	43.95	138	8.97
제조업	342	299	283	222	222	0	0.00	-120	-35.09
건설 및 설비업	158	103	138	104	131	27	25.96	-27	-17.09
전국	5,652	5,459	5,661	4,248	5,756	1,508	35.50	104	1.84

자료: 중소기업청

## | 어 · 음 · 부 · 도 · 율 |

서울의 3월 신설/부도법인 배율 전월대 상승

## ■ 서울의 어음부도율 전월대비 동일

- 3월 중 서울과 전국의 어음부도율은 0.02%로 전월과 동일
- 서울의 부도업체 수는 51개로 전월대비 13.3%(6개) 증가, 전국의 부도업체 수는 120개로 전월대비 21.2%(21개) 소폭 증가
- 서울의 신설법인/부도법인 배율은 40.3배로 전월(33.3배)보다 상승하였으며, 전국의 신설법인/부도법인 배율은 72.0배로 전월(55.2배)보다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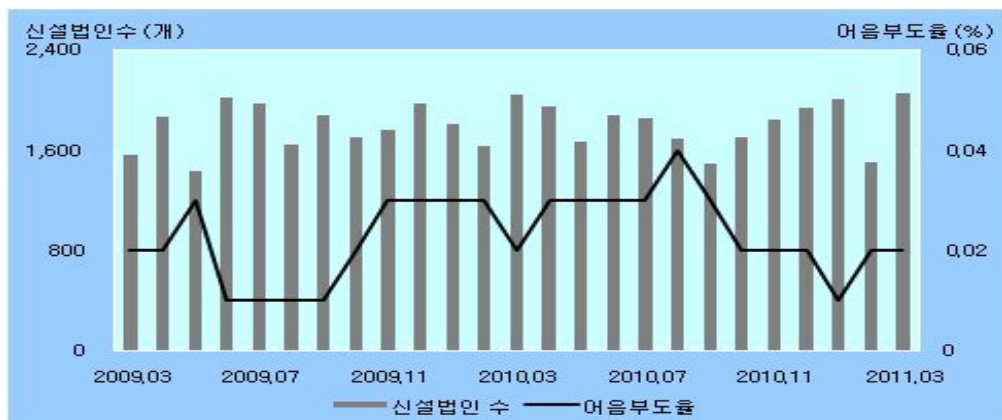
〈표〉 어음부도율 및 부도업체 수

(단위: 개소, %, %p)

구 분		2010년		2011년			전월비	
		3월	12월	1월	2월	3월	증감	증감률
서울	어음부도율	0.02	0.01	0.01	0.02	0.02	0.00	0.00
	부도업체 수	48	64	26	45	51	6	13.3
	신설/부도법인배율	42.6	37.2	76.9	33.3	40.3	7.0	-
전국	어음부도율	0.07	0.02	0.01	0.02	0.02	0.00	0.00
	부도업체 수	144	162	74	99	120	21	21.2
	신설/부도법인배율	53.3	44.0	76.5	55.2	72.0	16.8	-

주: 어음부도율은 전자결제 조정 후 수치임, 부도업체 수는 당좌거래정지업체 기준임

자료: 한국은행, 중소기업청



〈그림〉 서울의 창업 및 어음부도율 동향



## | 신 · 용 · 보 · 증 · 동 · 향 |

## 서울의 3월 신용보증 공급건수 · 금액 전월대비 증가

## ■ 보증지원 건수 및 금액 증가

-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서울시 신용보증공급은 3월 중 3,038건, 65,786백만원으로 전월대비 보증건수 47.9%, 보증금액 64.3%, 건당 평균지원금액은 11.3% 증가하였으며, 한편 전년 동월대비 보증지원 건수 및 금액은 각각 53.8%, 49.9% 감소

〈표〉 월간 신용보증 추이

(단위: 건, 백만원, %)

구 분	2010년		2011년			전월비		(전년동월비)	
	3월	12월	1월	2월	3월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건수	6,580	3,180	1,894	2,054	3,038	984	47.9	-3,542	-53.8
금액	131,380	46,034	23,167	40,038	65,786	25,748	64.3	-65,594	-49.9
건당평균금액	20.0	14.5	12.2	19.5	21.7	2.2	11.3	1.7	8.5

주: 전년동월비는 부지표임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 ■ 도소매업 지원 비중 상승

- 3월 중 도소매업종에 대한 보증지원 비중이 공급금액기준 38.7%로 전월(32.1%)대비 6.6%p 증가한 반면, 제조업종에 대한 지원은 8.8%로 전월(9.4%)대비 0.6%p 감소하였으며, 보증건수 기준 시 도소매업종은 36.0%로 전월(34.3%)대비 1.7%p 증가, 제조업종은 7.5%로 전월(7.4%)대비 0.1%p 증가

〈표〉 월간 업종별 신용보증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구 분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서비스업	기타	합계
건수	229	1,094	692	756	267	3,038
비율	7.5	36.0	22.8	24.9	8.8	100.0
금액	5,788	25,443	13,912	14,935	5,709	65,787
비율	8.8	38.7	21.1	22.7	8.7	100.0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 ■ 소기업 지원 비중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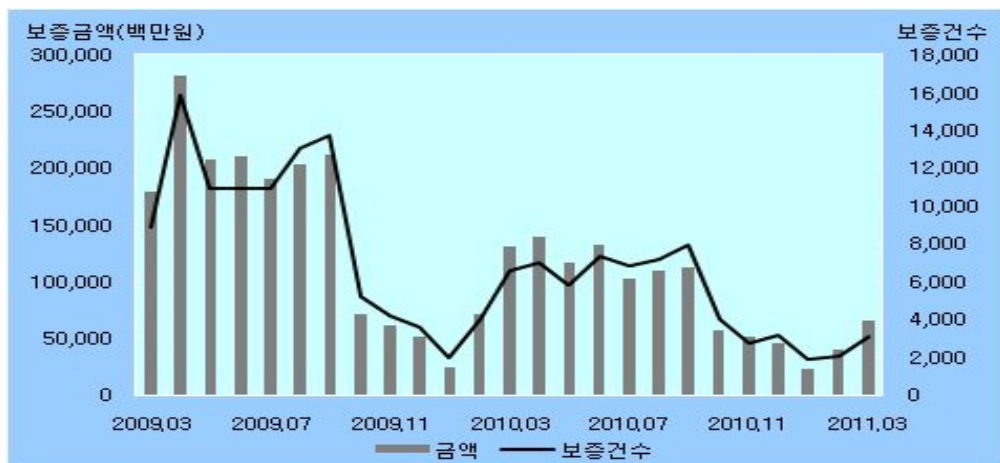
- 소상공인·소기업·중기업 모두 전월대비 건수·금액 증가
- 3월 중 기업규모별 신용보증지원 비중은 소상공인이 금액기준 88.2%로 전월대비 2.0%p 증가하였고 건수기준으로는 94.7%로 동일
- 한편 소기업 지원 비중은 금액기준 7.3%, 건수기준 3.1%로 전월대비 각각 2.7%p, 0.5%p 감소하였고 중기업 비중도 금액기준으로 4.5%, 건수기준으로는 2.2%로 전월대비 각각 0.7%p, 0.5%p 증가

〈표〉 월간 기업규모별 신용보증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p)

구분		2011.1	2011.2	2011.3	전월대비증감
소상공인	건수	1,819	1,945	2,877	932
	비율	96.0	94.7	94.7	0
	금액	20,612	34,520	58,040	23,520
	비율	89.0	86.2	88.2	2.0
소기업	건수	42	74	95	21
	비율	2.2	3.6	3.1	-0.5
	금액	1,792	4,015	4,785	770
	비율	7.7	10.0	7.3	-2.7
중기업	건수	33	35	66	31
	비율	1.8	1.7	2.2	0.5
	금액	766	1,505	2,966	1,461
	비율	3.3	3.8	4.5	0.7
합계	건수	1,894	2,054	3,038	984
	비율	100	100	100	0
	금액	23,169	40,036	65,787	25,751
	비율	100	100	100	0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그림〉 서울의 보증금액 및 보증건수 동향

## | 수 · 출 · 입 · 동 · 향 |

## 서울의 3월 수출입 전년동월대비 증가

## ■ 서울의 3월 수출입 전년동월대비 증가

- 3월 서울의 수출은 46.1억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27.6% 증가하였고, 수입은 109.9억 달러로 24.9% 증가
- 3월 전국의 수출은 480.7억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28.9% 증가하였고, 수입은 452.9억 달러로 27.3% 증가

## ■ 서울의 3월 수출 1순위는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수입 1순위는 반도체

- 서울의 품목별 수출의 경우,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가 553,804천 달러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고 다음은 자동차부품, 편직물, 반도체, 합성수지 등 순
- 서울의 품목별 수입의 경우, 반도체가 770,337천 달러에 달하였으며, 다음은 석유제품, 컴퓨터, 무선통신기기, 자동차 등 순

〈표〉 서울 및 전국 월별 수출입 현황

(단위: 백만 불, %)

구 분		2010년			2011년			전년동월비	
		3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증감	증감률
서울	수출	3,617	4,083	4,220	3,832	3,637	4,614	997	27.6
	수입	8,804	9,504	9,671	9,606	8,713	10,995	2,191	24.9
전국	수출	37,309	41,292	44,145	44,679	38,959	48,074	10,765	28.9
	수입	35,576	38,621	40,056	41,764	36,113	45,293	9,717	27.3

자료: 무역협회

〈표〉 서울의 품목별 수출

(단위: 백만불, %)

순위	품목명	2010년 3월		2011년 3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합계	3,617	43.0	4,614	27.6
1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353	-6.5	554	56.9
2	자동차부품	237	10.7	443	87.1
3	편직물	197	-4.9	256	29.7
4	반도체	252	46.6	255	1.0
5	합성수지	186	20.1	197	6.2
6	고무제품	145	12.9	183	26.3
7	합성고무	121	20.7	163	35.4
8	무선통신기기	125	-11.1	157	25.1
9	컴퓨터	211	16.7	140	-33.8
10	플라스틱제품	78	16.0	108	38.1

자료: 무역협회

〈표〉 서울의 품목별 수입

(단위: 백만불, %)

순위	품목명	2010년 3월		2011년 3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합계	8,804	58.5	10,995	24.9
1	반도체	672	14.9	770	14.7
2	석유제품	593	35.5	718	21.1
3	컴퓨터	553	19.8	615	11.2
4	무선통신기기	243	22.8	434	78.7
5	자동차	227	-7.3	406	78.7
6	항공기 및 부품	263	289.1	372	41.4
7	의류	228	12.8	372	63.1
8	철강판	142	35.8	305	114.3
9	농약 및 의약품	241	27.0	287	18.9
10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193	46.2	248	28.6

자료: 무역협회